글. 컨텐츠기획팀 구지선

굿네이버스 사업 현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2015년 기획특집 시리즈를 통해 좋은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봅니다.

© Good Neighbors

Good Change for the World ❺

굶주림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최근 '셰프', '먹방' 등의 인기와 함께 '맛있는 요리'에 푹 빠진 대한민국. 삶의 질이 중요시되면서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닌 더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금 레시피나 맛집에 대해서는 누구나 전문가 못지않게 얘기하지만 정작 굶주림으로 인해 생사를 오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빈곤의 최전방 '굶주림'

지난 7월 6일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MDGs)[1]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빈곤퇴치를 비롯한 8개 분야 목표의 달성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할 예정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인 인구의 비율이 1990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 인구의 감소는 괄목할 만한 성과지만, 빈곤과 기근을 근절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굶주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2015년 현재 약 7억 9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990년 약 10억 명에서 약 7억 9천만 명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영양실조 인구 비율도 23.3%에서 12.9%로 감소했습니다.[2] 이는 주로 아시아와 중남미에서의 식량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기상이변, 에볼라를 비롯한 질병, 내전 등으로 인해 농업 환경이 어려워졌고 불안정한 식량 사정으로 인한 굶주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영양실조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1)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8개 목표 :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초등교육의 완전 보급,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지속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 구축

2) 출처 :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5, FAO(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영양죽을 들고 있는 니제르 아동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 인구

1990년 19억 명 → 2015년 8억 3천만 명

개발도상국의 영양실조 인구 비율

1990년 23.3% → 2015년 12.9%

굶주림을 겪는 인구

9명 중 1명

5세 이하 저체중 아동

7명 중 1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영양실조 인구

4명 중 1명

상상 이상의 가치, '식량'

굶주림에 대한 문제는 비단 개인의 영양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업과 생활 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노동 능력의 저하, 낮은 생산성은 빈곤의 증가로도 이어지는데요. 이는 개인은 물론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긴급구호를 실시해왔습니다. 2000년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케냐, 차드, 니제르 등 기근을 자주 겪는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하고 빈곤가정에 식량을 배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지부 굴렐레 사업장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교실을 나섭니다. 맛있는 급식을 기다리며 줄지어 서있는 광경은 한국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굿네이버스 영양급식지원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아침을 굶고 등교해 점심까지 거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배가 고파 수업에 집중할 수 없던 아이들은 다양한 음식을 든든히 먹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을 보며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그 짐을 덜 수 있게 됐어요.
급식지원은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학습 효과성과 전체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 에티오피아 아디스 제멘 초등학교 교사 마헬렛 –

❶ 영양급식지원사업으로 신체질량지수(BMI)가 개선된 에티오피아 아동들
❷ 농지 개간에 참여하고 있는 르완다 지역주민들

빈곤퇴치의 출발점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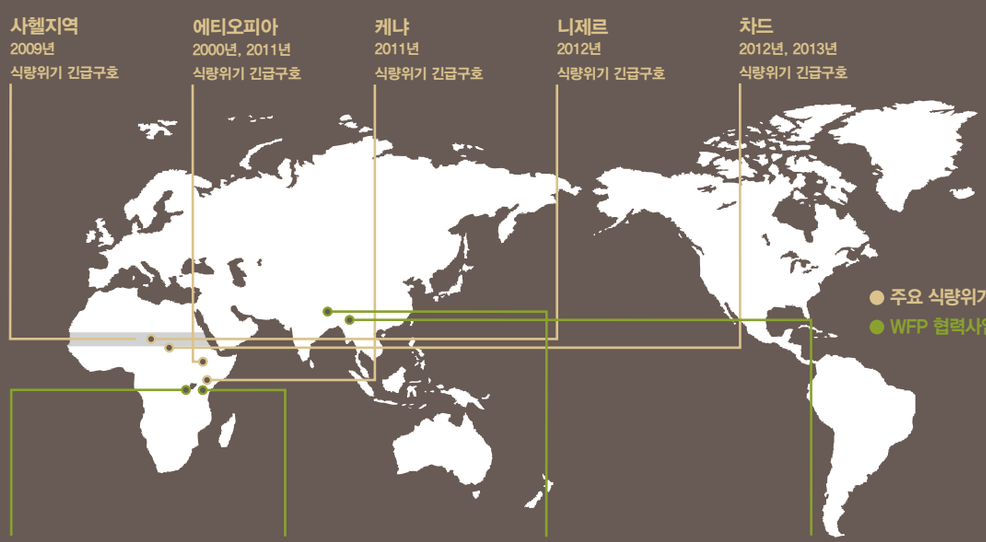
굿네이버스는 식량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 World Food Programme)의 공식 파트너로서 협력하며 빈곤 퇴치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1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을 시작으로 르완다, 탄자니아, 방글라데시에서 SZHC(Saemauel Zero Hunger Community)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개선과 통합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사회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르완다 정부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우무간다(Umuganda)'라는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마을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굿네이버스 르완다 지부는 지역주민들이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기술 역량을 강화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가 필수적인데요. 실제로 주민들은 농지 개간에 관심이 많아 계단식 농지를 만드는 작업에 9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한 명당 1달러씩 자금을 모아 농기구를 구매하는 등 이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르완다 농촌 곳곳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기존에 사용되지 않는 땅을
계단식 농지로 개간하여 농지를 확장한 것인데요.
지난 3년 동안 138ha의 농지를 개간하고 다양한 농업교육을 진행해
주민들의 농업기술 역량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마을 내 수확량은 기존보다 3배나 증가했죠."

– 굿네이버스 르완다 지부 현지 직원 안드레 –

[굿네이버스 주요 식량위기 긴급구호 및 WFP 협력사업 현황]

식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해 지역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사업을 진행합니다.



르완다
2012년 WFP와 MOU 체결
– 상수도 확장, 계단식 농경지 개간
– 소액대출, 종자, 농업훈련 지원

탄자니아
2014년 WFP와 MOU 체결
– 소형댐 건축 및 우물, 물탱크 등 식수시설 설치
– 가축대부, 농업훈련, 농업활동 지원

네팔
2011년 WFP와 MOU 체결
– 식수시설, 관개수로 등 기반시설 설치
– 농업, 축산업, 소액대출 등 조합 운영 지원

방글라데시
2014년 WFP와 MOU 체결
– 도로보수 등 재난경감사업
– 봉제, 정미소, 축산 등 조합 운영 지원

말라위 옥수수재배사업에 참여한 가족

좋은 변화의 시작 '옥수수'

옥수수가 무르익어가는 말라위 치오자 마을. 열 명 남짓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득증대 그룹 소속인 이들은 올해 옥수수 수확량을 예측하고, 창고에 저장해둔 것을 어느 시기에 판매할 것인가 논의 중이었습니다. 굿네이버스 말라위 지부에서는 2011년부터 옥수수재배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기근 문제 해결과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현재 치오자를 포함한 4개 지역개발사업장(CDP ;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에서 880명의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오자 지역의 경우 2013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옥수수의 조직적인 생산과 판매 영역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재배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지역개발위원회(CDC ;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로부터 첫 수확물의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씨앗과 비료를 받습니다. 먼저 전문가에게 농업교육을 받은 후, 지원받은 씨앗과 비료로 옥수수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가 끝나면 수확된 옥수수의 일부를 지역개발위원회에 갚고 식구들과 나눠 먹은 뒤, 남은 것은 적절한 시기에 판매합니다. 그동안 고리대금을 통해 씨앗과 비료를 구매하거나 소작농으로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던 주민들은 소득증대 그룹에 참여하면서 매년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빌려준 비료와 씨앗의 상환율은 90%를 훌쩍 넘었습니다. 한편, 소득증대 그룹은 곡물창고를 운영하여 구성원들이 씨앗과 비료 값으로 갚은 옥수수를 보관해둡니다. 보관한 물량은 식량이 귀한 춘궁기에 되팔아 높은 수익을 얻고, 수익금은 이듬해 빌려줄 씨앗과 비료를 사는 데 사용합니다. 소득증대 그룹은 지역개발위원회와 함께 다음 수혜가정을 선정할 뿐 아니라, 품질검사와 행정 관리까지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❸ 지역개발위원회(CDC) 회의 중인 주민들
❹ 남은 옥수수를 보관해두는 곡물창고 내부

"말라위 농림부에서 파견된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지역개발위원회로부터 옥수수 씨앗과 비료를 무료로 지원받았어요. 수확한 옥수수 중 7가마를 빌린 값으로 반납하고 가족들과 나눠 먹고도 10가마가 더 남았죠. 남은 옥수수를 겨울에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아 마련한 자본금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이제 굶을 걱정 없죠.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뻐요!"

– 말라위 옥수수재배사업에 참여한 므렌가 씨 –

우리 모두의 과제 '빈곤퇴치'

불과 40~50년 전, 우리나라도 국제기구의 원조를 받아야 할 만큼 배고픔을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된 NGO로서 식량 자원과 소득의 증대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주민들의 잠재된 역량을 발견하고 참여를 도모하며 지역사회 전체의 좋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는 굶주림 없는 세상을 떠올려 봅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는 에티오피아 아이들의 미소와 땀 흘리며 옥수수를 수확하는 말라위 주민들의 모습은 좋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굶주림 없는 세상은 비단 한 사람의 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오늘 뭐 먹지?' 누군가의 행복한 고민이 매일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전 세계 7억 명의 사람들. 이들을 향한 관심과 손길이 더해질 때, 굶주림 없는 세상은 우리 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